

10 오피니언

사설

학생 참여 없는 학내 민주주의 없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 보궐선거 입후보가 완료됐다. 국제캠 총학 입후보 결과 선거가 무산됐던 학생대표단 7개 선거구 중 과반이 넘는 4개 선거구에서 후보가 등록됐고 학과별로는 22개 선거구 중 80%가 넘는 19개 선거구에서 입후보가 진행됐다. 지난 12월 열린 총선거에서는 학생대표단 입후보율이 36%, 학과별로는 47%로 입후보율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학내 의결기구인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도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학내 중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중운위는 직접 선출된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 중운위원만이 의결권을 가진다. 직접 선출되지 않은 전임 학생회 등은 중운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거친 인준을 통해야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

러나 학생회 총선거 당시 직접 선출된 선거구는 전체 11개 중 4개에 불과했다. 인준 과정을 포함한 주요 학내 자치가 사실상 전체의 1/3에 불과한 소수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학생대표단과 학과별 대표로 구성된 확운위도 마찬가지였다. 직접 선출된 확운위원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확운위는 인준을 거쳐 임기 연장을 한 전임 학생회 등이 주축이 돼 진행됐다. 학내 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치성과 대표성을 상실한 채 붕괴 상태에 놓여있었다.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 입후보 결과는 학내 '직접'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목이다.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학생 대표단이 모두 당선될 경우 직접 선출된 중운위원의 비율은 73%로 늘어나 직접 선출자만으로도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충족이 가능하다. 학과별 선거구도 현재

입후보율을 합산할 경우 직접 선출자 비율이 92%로 늘어나 비선출 대표를 제외하고도 정상적인 의결이 가능해진다. 학생대표의 권위 상태에서의 학내 사안 대응력 등 학내 자치 문제에서의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입후보 무산으로 총학이 부재하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위드코로나로 2년만의 대면 전환이 예상되는 올해, 단절된 학내 자치·문화 재건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총학의 권위는 뼈아픈 손실이다. 학생회가 추진해 온 학내 주요 사안에도 차질은 불가피하다. 특히 이원화 문제에 대해 양캠 총학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해 왔지만, 총학이 부재할 경우 공동 대응은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총학의 결위로 인한 결과가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학

내 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부족은 곧 학내 자치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학생자치에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총학의 보궐선거 입후보가 완료된 같은 날 제20대 대선이 마무리됐다. 20대가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를 캐스팅보터로 주목을 받은 가운데, 우리학교 학생들도 각각 지지하는 후보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등 높은 투표 열기를 보였다. 대선은 끝났지만 학내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대선만큼이나 학내 자치를 위한 '학생 투표'에도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보다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대선에 표를 던졌듯이 보다 나은 학생 사회의 실현을 위해선 학생자치를 향한 학생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오는 22일 진행된다. 대선을 향한 열풍이 학내 자치에도 불어오길 기대한다.

세시봉

교육의 본질



박소는 기자
unaos@khu.ac.kr

최근 이른바 '강남 8학군'에 속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가 화제다. 중등고 이명학 교장은 다수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해왔음에도 이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이에 관해 이 교장은 편지에서 "이제 서울대에 몇 명 갔냐는 질문은 그만둘 때"라며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잘 받도록 하는 '학교다운 학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장의 이러한 언급은 오늘날 학력 주의 사회로 인해 훼손된 '교육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

'학력(學歷)'은 '배울 학'과 '지날 력'이 결합돼 '배움의 정도'를 뜻한다.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고등교육 과정을 어느 대학에서 받았는지 등이 모두 학력이다. 하지만 요즘 학력의 위상은 이를 넘어선다. '學力', 즉 '배움의 힘'으로 변질된 학력은 이제 사회적 힘 또는 지위를 드러내는 위치까지 이르게 됐다. 우리는 언제부터 타인과 교류하거나 어떤 특정인, 특히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을 파악할 때 학력을 중요한 정보이자 판단의 척도로 인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학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도 강해졌다.

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 교육이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교육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배움, 성장이 아닌 간판과 진학만을 중요시하는 모습은 그 목적과 동떨어져 보인다. 대학의 교육적 비전과 커리큘럼이 아닌 이름과 위신이 입학 결정에 있어 우선순위가 된 것, 대학 진학이 교육의 종착역이라는 학벌주의적 태도가 만연해진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력만을 중시하는 사회 실태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어지럽힌 채 대학 교육의 궁극적 목적 또한 왜곡하고 있다.

현재는 교육의 본질에 관한 성찰이 절실한 시점이다. '누가 어떤 학력을 가졌는지'가 아닌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며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가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본질이 굳건히 자리 잡을 때, 이는 본래의 기능을 하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발판이 될 것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장애학생도 동등한 학내구성원

모두의 대학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hu.ac.kr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표한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에서 우리학교는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 평가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대학'에 선정된 우리학교는 학내 건물의 배리어프리 시설을 설치하며 물리적 장벽을 허문 바 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란 '장벽(barrier)'과 '벗어남(free)'의 합성어다. 배리어프리는 공공시설이나 건축과 같이 물리적인 장벽 허물기에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사회가 쌓은 '마음의 벽'까지도 허물자는 의미다.

그러나 2022년 1학기 새롭게 도입된 필수교양 교과 대학영어의 레벨테스트는 청각 장애인 학생을 배려하지 못했다. 청해 시험의 응시조차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 토익 점수로 이수를 면제받던 기존의 대학영어 면제기준에서도 장애 학생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다.

레벨테스트의 대상은 '모든 재학생'이다. 따라서 장애 학생 또한 당연히 레벨테스트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을 고려한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장애 학생 또한 당연히 학교의 주체이다. 그러나 물리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나면, 이들은 쉽게 잊히고 제도적 장벽은 이들을 가로막기 시작한다. 누군가 이 장벽에 의문을 제기할 때 이들은 어렵사리 존중받기 시작한다.

장애 학생을 고려하는 것은 특정 대상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아니다. 누구나 불의의 사고로 들리지 않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제도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대학'은 진정으로 모든 학내 구성원을 고려하면서 시작된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 동등한 학내 구성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양여진

만평 모두의 학교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군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김경민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